로스쿨 정원 학교당 150명 이하

학교별 차등 배분…최소 이수학점 90학점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

오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별 학교당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150명)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이럴 경우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일례로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될 수 있다.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심의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의결하며 교육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13명은 법조인 4명(판사 1명·검사 1명·변호사 2명), 일반 시민(시민단체 등 포함)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 공무원 1명 등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장관이 9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총 정원은 법학계가 3천~4천명을,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년 당시)는 2천100명을, 서울변호사회는 700~1천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여타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駐광주 중국영사사무소 13일부터 비자업무 개시

광주와 전남·북, 제주를 관할하는 주(駐) 광주 중국영사사무소(수석영사 허잉·何穎)가 중국을 찾는 지역민들의 비자발급 업무를 오는 13일 공식 개시한다.

주한 중국대사관 광주 영사사무소 1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과 전산망 구축 등 업무 준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이전식을 갖고 13일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진 1매·여권·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중국영사사무소를 방문, 간단한 서류작성을 통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의 따라 ▲일반의 경우 3박4일 ▲급행 1일 ▲특급은 당일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23일 개소한 광주 중국영사사무소는 서울 중국대사관과 부산 총영사관에 이어 한국에 세 번째 설립된 중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며 광주지역 최초의 외국 기관이다.

지난 3월 임시사무소를 개소한 광주 중국영사사무소는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의 권익 보호 업무만 담당했지만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비자발급 업무 등도 취급하게 됐다.

이번 비자발급 업무 개시로 호남과 제주지역에서만 연간 20여만 명이 발급비용 60억~70억원을 절감, 발급기간도 3~4일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62)385-8873~4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태풍 오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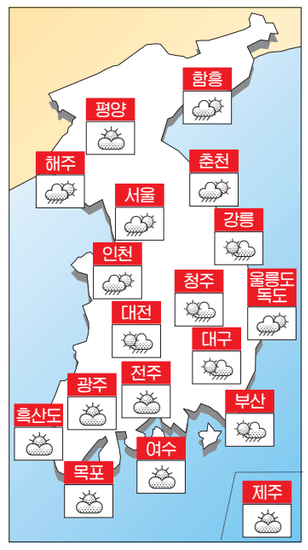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리겠다.

7월 27일 (음 6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5~33℃
목 포	구름 많음	25~32℃
여 수	구름 많음	24~30℃
완 도	구름 많음	25~32℃
구 례	구름 많음	25~34℃
해 남	구름 많음	24~32℃
장 흥	구름 많음	24~32℃
고 흥	구름 많음	24~32℃
순 천	구름 많음	24~34℃
영 광	구름 많음	25~32℃
진 도	구름 많음	25~33℃
전 주	구름 많음	25~33℃
남 원	구름 많음	24~34℃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5~3.0m

목 포 밀물 〈 04:22 16:32 썰물 〈 09:38 21:47
여 수 밀물 〈 11:16 23:39 썰물 〈 05:08 17:12



▲해뜸 05:42 ▲해짐 19:35 ▲달뜸 21:31 ▲달짐 08:5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 씨						
최저/최고	25/31	24/33	24/33	24/32	24/32	25/33

■ 로스쿨법 입법 예고 전남대·조선대 반응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한 것은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로스쿨 유치에 나선 전국 40여개 대학에 보다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교육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학교 정원을 정할 법학교육위원회는 각 대학별 준비 상태나 교육수준은 물론 지역 안배 등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전남대 등 12개 국립대는 변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시·도별로 1개교 정도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선대·동아대·영남대 등 이른바 '지방 사립 3강'역시 국립과 사립, 수도권과 지역 안배 차원에서 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대는 이와 관련 "국립과 사립 간,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선대는 여기에 덧붙여 "실제로 로스쿨 유치를 준비한 대학 대부분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는 교원 확보, 시설이나 장학금 등 교육여건 확충을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로스쿨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전남대 법대는 전직 판·검사 7명 등 16명의 교수를 새로 채용하는 등 32명의 교수를 확보했고, 오는 2011년까지 교수진을 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법대 인근에 로스쿨 전용관을 새로 짓고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사립·지역안배 차원 선정을"
교수 확보 등 착실 준비 유치 자신

11명의 교수를 새로 뽑아 25명의 교수를 확보한 조선대 법대는 오는 2009년 개원까지 교수를 33명으로 늘려 교수 1인당 학생이 9명 수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이미 20억원을 들여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췄으며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300억원을 조성해 놓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

5대 거품 뺍시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 광주 북구본부' 회원들이 1일 광주시 북구 향토음식박물관에서 발대식을 한 뒤, 기름값·휴대전화 요금·약값·카드 수수료·은행 금리 등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5대 요금의 거품을 빼자는 주장을 형상화한 수박 조각품을 살펴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내년부터 의·약사 처방전 확인 의무화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

내년부터 약사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내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거나 의사가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호한 처방전 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사와 약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한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법률은 약사나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하는 의심 사항을 3가지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폭염특보때 등교시간 조정

교육부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 발령시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이 제한되고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합뉴스

태풍 '우사기' 내일 남해안 영향

"적조만 없애고 지나갔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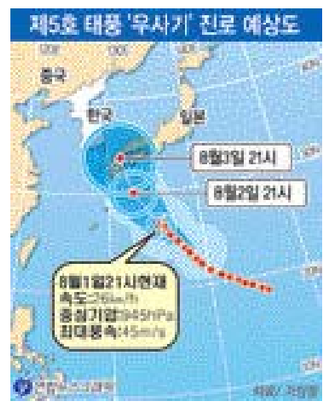
제 5호 태풍 '우사기'(USAGI)가 북상하면서 오는 3일께 남해안 지역에서 확장되고 있는 적조(赤潮)와 세력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해상에서는 일본어로 토끼를 의미하는 태풍 '우사기'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괌 북쪽 510㎞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26㎞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여수 해상에서는 폭 200m·길이 500m 규모의 적조띠 3~5개가 발견돼 지난달 31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됐다.

현재 '우사기'는 ▲중심기압 945hpa ▲최대 풍속 시속 162㎞ ▲강풍 반경 400㎞의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여수해역은 표층 수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급증해 적조가 확산될 것으로 예보됐다.

'우사기'와 적조의 대결은 3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우사기'가 일본 큐슈 내륙으로 상륙하면서 여수 앞바다 등 남해상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태풍은 비와 바람을 몰고 오면서 일사량을 감소시키고 수온을 하강시켜 적조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약화시킨다. 강한 바람으로 높은 파도를 일게 해 바닷물을 뒤엎고 집중 강우로 바다에 토사를 유입해 적조띠를 끊거나 적조 생물의 활동력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12억원의 적조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02년에는 8월 말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통과한 뒤 적조가 없어졌다. 2000년과 1999년에도 태풍 '사오마이'와 '비트'가 지나가면서 적조 소멸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05년 태풍 '나비'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적조를 소멸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일본 쪽으로 경로를 틀었다. 대신 큰비만 뿌리고 가는 바람에 육상의 영양물질이 바다로 유입돼 적조 밀도를 증가시켜 피해를 키웠다. /김여울기자 wool@